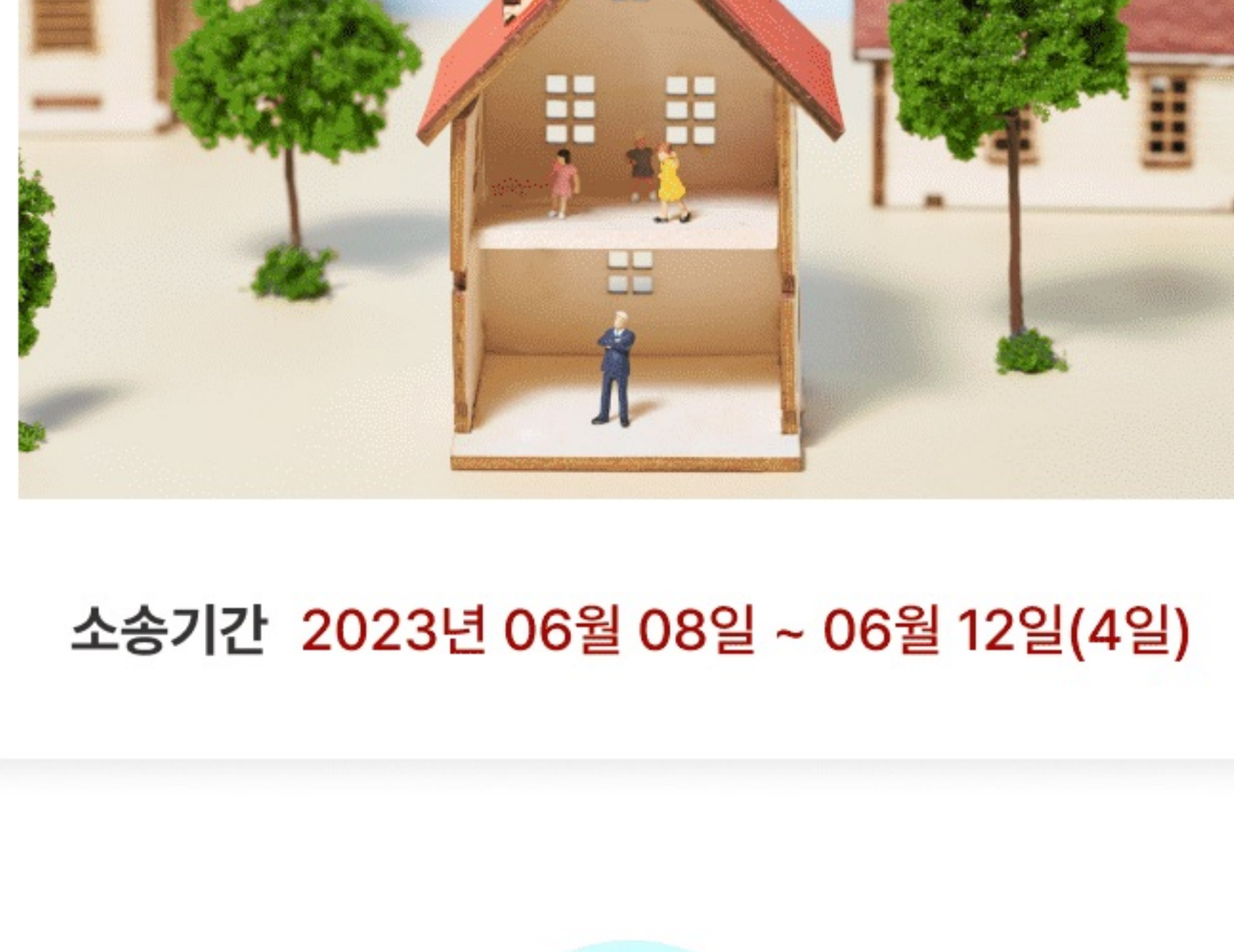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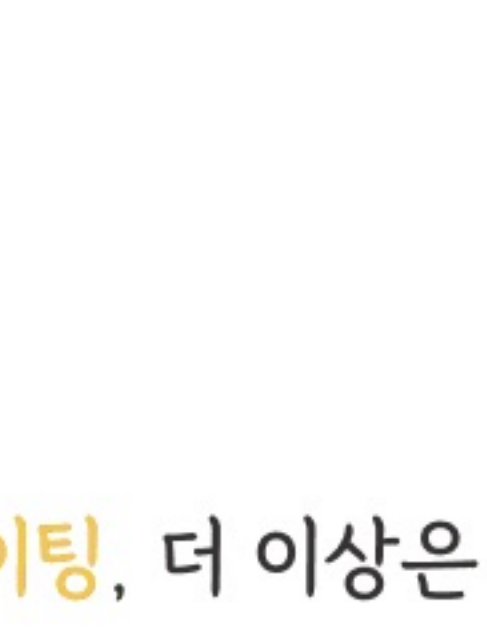


부동산 가압류, 재산분할 확정 이후를 위한 보전처분

# 부동산 가압류



소송기간 2023년 06월 08일 ~ 06월 12일(4일)



부동산 가압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삽니다."

"혼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저의 재산을 돌려받게 해주세요.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지역 : 대전  
결혼기간 : 6년  
미성년자녀 수 : 없음  
관할법원 : 대전가정법원

부동산 가압류, 남편으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결정!



## 청구 사유

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별 후 지인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을 식모 및 비서 취급을 하며 가스라이팅까지 하기 일쑤였고 의뢰인의 재산으로 토지 매입을 증용해 재산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STORY

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별 후, 지인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14살의 나이 차이였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낭만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며 재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의뢰인을 식모 및 비서 취급을 하며 사소한 일부터 커다란 일까지 의뢰인에게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입에 사용하도록 증용하였고, 이후 아파트마저 매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피폐해져버린 의뢰인은 남편과의 다툼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가스라이팅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혼인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돌려받길 원하였습니다.

## PROCESS



법무법인대세 방문 · 상담



전담팀 배정



소송제기

### 사건수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을 돌려받길 원했지만, 남편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 사건검토

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별 후, 지인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은 결혼 이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을 식모 및 비서 취급하였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의뢰인에게 본인의 말을 따르게 하고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의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입에 사용하도록 증용하였고, 이후 아파트마저 매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피폐해져버린 의뢰인은 남편과의 다툼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 소송제기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남편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이 아파트를 매매하여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타당한 이혼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RESULT

법무법인대세

### 부동산가압류

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이혼
- 위자료
- 부동산 가압류 성공
- 친권양육권
- 양육비

이혼 소송 전담팀은 재산조회 신청과 재산현황 파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 뒤,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서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KEY POINT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신청서를 다르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과정은 일반인이 홀로 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무리가 있기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소송 전담팀과 같이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대세

Copyright © 법무법인 대세